



자전거 도로 정보 12편

새재 자전거길

험준한 이화령을 넘는 문경새재 자전거길



충북 괴산 연풍면과 경북 문경 문경을 사이에 위치한 이화령

충북 괴산 연풍면과 경북 문경 문경을 사이에 위치한 이화령은 오르막 5km와 내리막 6km로 이루어진 해발 548m 높이의 백두대간 고개다. 구불구불 오르내리는 고개가 가파르고 험한 데다 호랑이를 비롯한 산짐승의 피해가 많아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함께 넘어갔다고 하여 이우릿재로 불렸다. 이후 고개 주위에 배나무가 많아 이화령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험준하기로 이름난 해발 548m 높이의 백두대간 이화령을 넘는 새재 자전거길은 상당한 체력과 인내력을 요구하는 구간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이어주는 국토종주대장정의 중심이다. 아담한 풍경이 펼쳐지는 선비들의 길, 마을길과 들길로 이어져 두 바퀴마다 시골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소박한 시골 내음을 지낸다. 청운의 꿈을 안고 영남대로를 달려 문경새재를 넘던 조선 선비들의 숨결이 남아 있는 길이다.

퇴계 이항 등 선비들 넘던

문경새재

문경새재는 조선 초에 개설된 영남대로 고갯길로, 퇴계 이항을 비롯해 서거정, 김종직, 김시습, 이언적, 주세붕, 이이, 김성일, 류성룡, 이수광, 김만중, 정약용, 김정희 등 수많은 선비들이 이 고개를 넘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 길에 나선 선비와 임지 행차길에 오른 목민관이 문경새재를 벗 삼은 이유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잇는 가장 짧은 고갯길이었기 때문이다.

탄금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자전거도로의 명소

호수처럼 잔잔한 남한강 물길이 한눈에 들어오는 탄금대는 애달픈 사연이 새겨진 역사의 현장이다. 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 낙동강 개포나루에서 나룻배에 열두 줄 가야금을 싣고 신라로 귀화한 대가야의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뜯으며 망국의 한을 달랬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또한, 탄금대는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순국의 현장이기도 하다.



코스정보

충주탄금대 - 수안보온천 - 이화령휴게소 - 문경불정역 - 상주 상풍교

전체거리 100km

예상시간 6시간 40분

난이도

(다음 호에 계속) - 자전거 도로 정보 제13편

참고자료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 한국관광공사